

최근 인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는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 먼저 경찰의 고문(拷問)수사 의혹이다. 한마디로 말해 고문은 가장 야만적인 범죄 행위이다. 우리의 헌법 제12조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고문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뒷걸음 하는 국민의 인권

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한다. 반인륜적인 고문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 발표 내용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물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고문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묵인 또는 은폐하려 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조사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고 가혹행위를 했다면 의외로 고문 수사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일상화,

만연화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두 달간이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내부 촬영 영상 중 일부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점이 다. 실제로 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받았다고 한다. 이는 축소 은폐 의혹까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고문 수사는 엄혹했던 과거 시대의 어두운 유물이다. 고문 수사가 존재하는 한 민주사회, 인권국가라는 단어는 참으로 요원하다. 고문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경찰로서도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 경찰의 명예를 결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규명해야 한

다. 고문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다뤄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까지 불법 조사했다는 의혹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미국교포 학생으로 보이는 K씨가 미국의 '마이 스페이스'에 게시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뤄 국내에서 방영된 화면들을 편집한 것이다. 그동안 178만 여명이 접속했고 지금도 수십억 개의 블로그, UCC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모 아당의원이 국회 정부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도출된 이번 의혹도 인권의 퇴행과 궤를 같이 한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해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에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대책 운운하다가 말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제로 인권교육 강화 등 정권 차원에서 명예를 결코 일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따위 추하고 부끄러운 유산을 안고 있을 것인가.

사설

6.25 60돌, 전쟁과 평화

지난주 우리는 6.25 60주년을 보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 400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한반도는 '마이 스페이스'에 게시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뤄 국내에서 방영된 화면들을 편집한 것이다. 그동안 178만 여명이 접속했고 지금도 수십억 개의 블로그, UCC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통일을 이룬 동력이 자유, 평화와 민족의 자주성이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정서적인 민족 통합과 재사회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결구도가 당분간 굳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행사였다.

여러 행사 중 평화재단과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이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독일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세 나라의

통일은 준비하는 것도 아니며,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큰 비용을 지출한다. 세 나라의 통일과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인 민족 통합, 통일 후의 재사회화과정은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다. 불교계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통일은 거머잡고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세 나라의

안상수 의원의 유감, 유감스럽다

지난해 11월 '강남 부자 절 좌파 스님'이 주지' 운운했던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불교계는 안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사과와 함께 당시 그가 맡고 있던 원내대표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청정승가대중결사회 회원 스님들은 한나라당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불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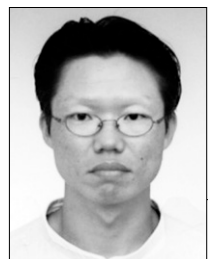
안 의원은 지난 6월 21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불교사와 관련, 명진 스님과 김경국씨가 한 발언 내

용은 작년 11월의 일이라 오래돼 기억이 주지' 운운했던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우리는 안 의원이 당시 발언으로 불교계가 느낀 모욕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 먼저 그 형식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은 낭독 후 마치 끝났듯 하나 치우듯 덧붙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신도들의 대성도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도 한탄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 실세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불교사와 관련, 명진 스님과 김경국씨가 한 발언 내

6·2 지방선거는 디지털혁명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실시간(實時間)'이라는 주머니속 폭탄(스마트폰)을 쏘아 올림으로써 그 혁명이 무엇을 핵심적인 무기로 삼아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를 만방에 예고했다. 인터넷(웹)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연결인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정보의 새로운 유통 통로로서, 새로운 유형의 공론장(公論場)으로서 어떤 파괴력을 발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단순한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서만이 아니라 공론장의 구실을 톡톡히 했다.



사부대중 칼럼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NGO리서처 소장

시민사회와 불교의 리더십

다.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천운동'이 있었고, 2002년 '붉은악마'의 등장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있었고, 2008년 '촛불문화'가 만개하였다. 그 바탕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진실과 자유, 공정과 투명,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사회적 정의로 부단히 전파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열정적 활동이 거름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가 비록 지금은 집권력이나 영향력이 많이 줄었지만 단순 후원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각성된 주체적 시민의 탄생으로 그 희생과 열정을 보답 받은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성장해 온 과정에서 불교의 리더십은 부족했다. 비록 수경스님을 비롯하여 몇 명의 명망가들의 개인적 리더십은 탁월한 바가 있었으나 네트워크의 성장, 그 네트워크의 연결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활동가들의 성장이 없는 개

인적 리더십은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활동의 중요한 목적이 각성된 시민의 네트워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동방식도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필자는 지금이, 1만여 단체 중에 불교 배경의 시민사회단체가 2~30개 안팎에 불과하고 게다가 전국광역단위 연결망을 가진 조직체는 하나도 없는, 이런 현실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10년 뒤 불교는 시민사회와의 건강관 교호작용 과정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리더십을 모조리 상실하게 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와 '집단지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은 공유와 기여가 바탕이 되는 정신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 지식, 정보들을 과감하게 무

료 제공하여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 그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키도록 기여할 때 비로소 리더십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리더십은 상실된다. 더군다나 기여보다는 보상을 추구할 때, 개방과 공유보다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우선 할 때 그나마 있던 리더십도 모조리 파괴된다.

그렇다면 불교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불교가 가진 물적, 인적, 지식적 자산을 시민사회에 내놓는 것이다. 광대할 토지, 수려한 자연과 명승, 수많은 문화유산 같은 물적자산, 사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신도 같은 인적 자산, 불교철학과 수행의 방법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 같은 지적자산을 개방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적인 시민사회활동가를 양성하고, 1인단체나 소규모단체의 창업을 지원해서 불교와 시민사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자들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와 신도들에게 '보편시민교육'을 교리교육과 더불어 필수과목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이는 제발 가져다 써달라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답답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조계종총무원에서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데, 이 법은 2003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자칫하다가 법이 제정되었을 때 만시지탄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6200 / 대표팩스(02)737-0697

| | | |
|---|--|---|
|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 외사출판물담당 실시간 뉴스 보도자료 불교포탈 부디피아 쇼핑몰 연필상담국 |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현대불교 지사안내

| | |
|--|--|
|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불교TV 프로그램 DVD 시리즈 안내 불교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 판매 02.3672.7181

나를 깨우는 108배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 '108배의 모든 것' 나를 깨우는 108배 CD와 DVD 출시!!

나를 깨우는 108배 CD

지은이 : 구본일 / 독송 : 영진스님
 구성 : CD 1장 / 판매가격 : 10,000원

나를 깨우는 108배 DVD

지은이 : 구본일
 독송 : 영진스님(한글판), 현각스님(영문판)
 구성 : DVD 1장 / 판매가격 : 15,000원

예불-다큐예불 / 삼보사찰 예불

예불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및 해인사(새벽예불), 통도사(사시불공), 송광사(저녁예불)편이 수록되어 있다.
 구성 : DVD 2장 / 판매가격 : 30,000원
 1 DVD - 다큐 예불 / 2 DVD - 삼보사찰 예불(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다큐-출가 새로운 탄생 / 발우공양

또다른 한 세상의 진정한 '나'를 찾는 출가와 그 출가정신이 배어있는 발우공양을 통해 출가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구성 : DVD 2장 / 판매가격 : 30,000원
 1 DVD - 출가 새로운 탄생 / 2 DVD - 발우공양
 케이블TV 우수프로그램 수상작

현각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

현각스님이 설하는 대승불교의 대표경전 금강경, 쉽고 간결한 화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
 구성 : DVD 6장 / 12권짜 세트 판매
 판매가격 : 79,000원

왕초보도 따라하는 불교예절 불교상식

불자라면 반드시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불교예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성 : DVD 1장 / 판매가격 : 20,000원